

경북동해안지역 경제일지

(2023년 12월중)

12. 5. ▶ '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' 착공

- 환경부는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(남구 동해면) 내에 폐배터리 순환경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'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(클러스터)' 착공식을 개최
 -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폐배터리 발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서 희소금속 등 광물자원을 추출하여 배터리 제조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추진
 -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녹색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재활용 기업의 기술 개발 및 판촉, 교육·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동 클러스터를 조성
 - 총사업비는 485억원(포항시 부담 30억원 포함)이며 진흥시설(배터리 종합정보 지원센터)과 연구시설(배터리 자원순환 연구센터)을 '25.6월 준공할 계획
- 포항시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 등으로 배터리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동 사업이 탄소중립 달성과 신성장 모델 확립 등 배터리 전후방 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

12. 6. ▶ 포스코퓨처엠, 포항 공장에서도 단결정 양극재 양산

- 포스코퓨처엠이 광양에 이어 포항공장에서도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소재인 단결정 양극재 본격 공급에 나섬
 - '23.3월 광양공장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데 이어 급증하는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포항공장에서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양산하기 시작
 - 포항공장에서 양산하는 제품은 니켈 비중 86%의 NCMA 단결정 양극재*로

미국 GM社와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내 배터리 합작사인 울티엄셀즈(Ultium Cells)에 공급

* NCMA 단결정 양극재는 핵심원료인 니켈(N)·코발트(C)·망간(M)·알루미늄(A)을 하나의 결정 형태로 결합해 에너지밀도를 높여 주행거리를 늘리고 열안정성과 수명도 함께 향상시키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, 전기차 고성능화 트렌드에 맞춰 수요가 빠르게 증가

- 포스코퓨처엠은 국내의 생산기지에 단결정 양극재 라인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, 이에 따라 포항 양극재 공장은 생산능력이 현재 3만톤에서 '26년 10.6만톤으로 늘어나 글로벌 배터리소재 시장공략의 핵심 기지로 성장할 전망

12. 31. ▶ 한수원, 포항에 첫 직접 운영 연료전지발전소 준공

- 한국수력원자력은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(남구 동해면) 내에 운영사가 직접 정비까지 맡는 국내 최초의 연료전지 발전소 '포항 에너지 파크'를 9,917㎡(약 3천평) 규모로 준공
 - 친환경 분산형 에너지보급과 연료전지 운영기술 확보를 목표로 약 960억 원이 투입된 19.8MW 용량의 발전시설로, 연간 1.6억kWh의 전기를 생산하게 되며 이는 4인가구(월평균 400kWh 사용 가정) 약 3.3만세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
- 연료전지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평가되며 특히 미세먼지의 주요 물질인 질소산화물(NOx), 황산화물(SOx), 분진 등이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 분산 발전원으로 각광
- 전력 사용이 많은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, 두산퓨얼셀, 포항 테크노파크와 함께 포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에서 연료전지 유지보수 기술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